



과연 부자들의 뇌는 일반인들과 다를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의 뇌는 정말로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다를까?

성공지능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버트 J. 스텐버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성공지능'이란 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공지능 가르치기'에서 성공지능의 구성요소로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행지능을 제시한다.

복잡한 상황의 맥을 짚는 분석지능, 새로움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창의지능, 그리고 이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실행지능이 골고루 발전한 사람들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다.

국내 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온 김영한 VIP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최근 출간한 '부자IQ'에서 최근 부자가 된 30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4C요소가 뛰어나다고 결론지었다.

부자들에게 창조력(Creativity), 전문성과 기술(Craft), 용기와 행동(Courage),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커스터머(Customer) 파악능력이 남다른 것이다.

결국 스텐버그 교수와 김영한 소장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은 셈이다. 스텐버그 교수의 분석지능의 개념은 김영한 소장의 전문성·기술(Craft), 그리고 고객(Customer) 파악능력과 연결되며, 창의지능은 창조력(Creativity), 실행지능은 과감한 용기와 행동(Customer)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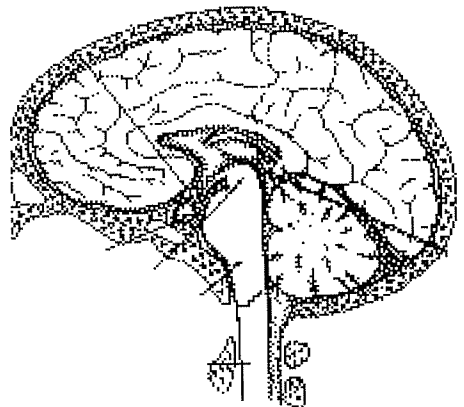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엔 부자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방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스텐버그 교수와 김

영한 소장이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부자들을 연구했다면 이젠 최첨단 장비를 통해 부자들의 뇌 속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다. 기능성자기공명 영상법(f-MRI)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PET)을 통해 부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뇌를 쓸 때 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된 것.

최근 연세Yoo&Kim 신경정신과 유상우 원장은 자기 힘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부를 이룬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자들과 대졸 이상의 평범한 직장인들을 나눠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두 그룹의 평균 지능지수(IQ)는 비슷했다. 부자들의 경우 116, 일반인은 114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동일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했다. 문제를 푸는 동안 그들의 뇌를 촬영해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두 그룹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문제를 푸는 동안 두 그룹



은 모두 '배외측 전전두엽'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그룹이 다른 점은 일반인은 뇌의 다른 부위도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부자들은 주로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특정 부위에 의존해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는 두 그룹 사이에 뇌의 활용방식과 기능의 차이가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유 원장은 “부자들이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뇌의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뇌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학력이나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용한 배외측 전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할까? 전문가들은 배외측 전전두엽을 '뇌의 최고 사령부'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다양한 사고를 하는 부위라고 한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해 이리저리 조작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스티븐버그 교수가 말한 분석지능과 창의지능이 형성되는 곳이 이 곳인 셈이다.

유 원장이 실험에서 밝혀낸 것은 부자들은 패턴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배외측 전전두엽을 활발히 활용한 부자들이 패턴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밝혀낸 것.

음식점 경영으로 47세에 100억원 대의 재산가가 된 여성의 경우 전혀 관련이 없는 신문기사들을 읽고 이를 한 편의 소설처럼 큰 흐름을 부여해서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였다.

또한 '카드분류게임' 등을 통해 돌발 상황을 제시했을 때도 부자들은 배외측 전전두엽이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면서 매우 활성화된 반면, 일반인들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배외측 전전두엽이 부자와 일반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부위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유 원장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뇌의 구조와 기능이 있는 상황에서 뇌의 특정 부위를 계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배외측 전전두엽의 활용이 부자들의 사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자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그들이 감성적이기 보다는 절저히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시오타 히사시 브레인사이언스 연구소 소장은 그의 책 '성공뇌'에서 “부자들은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밝힌다.

감수성이란 사물을 느끼는 힘, 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기 주위의 자극이나 조건에 대해 느끼거나 반응하는 성질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행동의 원천인 감정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감정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정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고등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전두엽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